

고창 수박 명성 잇는 '미니 수박'

재배면적 55.7ha로 전년비 두배
블랙망고 등 3종 전국 면적 12%
올 첫 정식...5월 본격 출하
심덕섭 군수, 육성·지원 간담회



심덕섭(왼쪽) 고창군수가 지난 20일 미니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직접 미니수박 모종을 심어 보고 있다. <고창군 제공>

대한민국 대표의 수박브랜드로 통하는 '고창수박'의 명성이 '고창 미니수박'으로 이어지며 재배 면적 역시 확대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20.5ha였던 미니수박의 재배 면적이 올 봄 식재량만 55.7ha로 늘어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니수박 주품종 중 '애플수박'에 이어 '블랙망고수박'과 '블랙보스수박'도 33.2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어 3종의 중·소과종 수박의 재배면적량이 전국 면적량의 12%에 달한다고 전했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한동석) 회원들이 재배하고 있는 미니수박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맛볼 수 있다.

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작은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시범사업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미니수박 토양 및 양분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며 미니수박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 농촌개발대학 시설원예과를 운영하며 미니수박 재배기술 교육 등 재배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미니수박 첫 정식 현장을 찾아 모종을 직접 심어보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 회원들과 미니수박 육성·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의 명성을 유지하고 미니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품질관리와 마케팅 등을 통해 미니수박 재배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농특산품 식품산업 육성 군-한국푸드테크협회 협약

고창군 출연기관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21일 오후 한국푸드테크협회와 푸드테크 기반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푸드테크란 Food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변화하는 식품산업을 뜻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기업 발굴 및 양성 ▲유관기관 및 대학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고창군 내 농식품산업 발전 기반 마련 및 농식품 경영체 육성 지원이다.

푸드테크는 코로나 19 이후 세계의 식품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으로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고창군은 식품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푸드테크 분야에 집중하고 2월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내에 한국푸드테크협회 전북사무소를 유치한 바 있다.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은 "고창군에 푸드테크 전북사무소 설치를 통해서 고창군의 푸드테크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봉사단체 정읍시니어클럽 '감사의 날'



노인일자리창출과 노년의 행복을 전담하는 봉사 단체인 정읍시니어클럽(관장 박환수)이 최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단풍미인 명품관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정읍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백미 100포를 후원한 내장산 골프&리조트 김호섭 회장과 기능성 마스크 6000매(1800만원 상당)를 기증한 아이투엘 건설 김희선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수 관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사업이 후원사업과 봉사이고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허홍진 참대위지원봉사회장은 "노인 분들이 외롭지 않고 정이 넘치는 훈훈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데 앞장서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는 정읍시니어클럽은 현재 시로부터 정규직 6명과 일자리 담당 15명을 지원 받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북도로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개인 후원 53명 1630만원, 단체후원 19개 단체 3154만원, 물품후원으로 7개 단체에서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50만원

다음달 6일부터 희망자 신청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정읍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관련 예산은 29억1000만원, 관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정읍사랑상품권'의 카드형인 무기명 선불카드로 각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재원순환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폐업했던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점포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치매예방교육 앱 '기억하리' 개발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예방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 홍보 및 교육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원시는 자체 개발한 치매예방 모바일 앱 '기억하리'를 활용해 지역 23개 읍·면·동 이·통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9일까지 모바일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 앱의 필요성과 다운로드 및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발·출시된 모바일 앱 '기억하리'는 현재 전국에서 4588명이 사용자 등록했으며 이중 남원시민은 3103명이 사용 중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달력이 높은 이·통장들에게 모바일 앱 홍보 및 활용교육을 실시해 남원시민 모두가 치매예방교육용 앱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양봉 농가 위한 '밀원수림' 조성

기후변화 대응 꿀벌 생육 지원

정읍시가 밀원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림 조성에 나섰다.

정읍시는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양봉사양을 지원하고자 옹동면 상산리 일원에 8ha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주요 벌꿀 생산수종 나무 1만여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밀원수림 조성은 꿀벌의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숲을 만드는 사업으로 꿀벌 실종사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밀원수는 아까시나무와 백합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밤나무 등이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시는 계절별 꽃과 향기가 있는 밀원수 조림지를 확보함으로써 꿀벌의 생육환경 조성을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유지 등 경관자원으로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입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 소득원"이라며 "양봉농가의 소득향상과 산림자원의 가치 향상을 위해 밀원숲을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꿀 생산을 지원하는 밀원숲의 순기능에 아름다운 숲 조성을 통한 경관기능까지 더하고자 오는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경관형 밀원숲'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